

**수집감사절
설 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시편 50:14~15>



들어가는말

여러분들은 한국 삼성그룹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 최대 재벌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시가총액이 16위에 있는 기업입니다(2018년 기준). 이 회사의 창업자인 이병철은 와세다대학을 병으로 인해 중퇴하였지만, 한국 대구에서 창업하여 한국 최대 재벌의 토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지인인 어느 신부님에게 질문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이 그의 질문에 답을 할 만한 적임자를 찾던 중, 1987년 안타깝게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질문과 답은 나중에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기업가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 심사숙고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질문들은 바로 우리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었고, 또 그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서 답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아.

1. 최종가치와 수단 가치

그의 질문은 24개 있었습니다. 24개 질문 모두 다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 “신(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 할 수 있는가?” 그밖에도 신의 존재를 묻는 말이 있고, 우리 인생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등등.

그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추구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내가 사는 이유란 무엇일까”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의의인 것입니다. 그 책을 쓴 신부님은 이런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장래 직업에 관해 물어 보았습니다. 1500명 중, 1245는 돈을 버는 일을 우선시했고, 255명은 돈보다

임명기 목사 (교토교회)

는 좋아하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중에 백만 장자가 된 사람이 101명이 나왔습니다. 그 101명 중 100명은 좋아하는 일을 우선시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만이 돈을 버는 일을 우선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가치는 최종가치와 수단 가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종가치란 바라는 삶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만장자가 된 100명처럼 좋아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삶. 그와 대조적인 것이 수단 가치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번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도 바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면 가치가 배가 되겠고, 나쁜 곳에 사용하면 가치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사43:7)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에 정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예의 땅 애굽에서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50:13)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계신 것은 번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50:14)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갈급함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의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부디 모든 교회가 감사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宣教110周年記念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會110周年準備委員会は、大会を記念して 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



총회 제2회 상임위원회 개최

제55회 정기총회 일정 등을 결정

제54회 총회기 제2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6일, 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에서 개최되어 상임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보고 및 안건심의가 있었다.

중요한 결의 상향은 다음과 같다.

- (1)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에크로프 용자 500万円 요청을 승인하다.
- (2) 재일본한국YMCA가 요청한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주일>을 2019년 2월 3일 주일에 전국교회가 지킬 것을 승인하다.
- (3) 쿠마모토(熊本) 교회의 <교회당 신축에 따른 전국교회 모금> 요청을 승인하다.
- (4) 치리위원회가 내린(2018년 4월 27일부) 동경교회 5명의 장로에 대한 정직처분을 따르지 않겠다는 <통고문>이 보내 온 것은, 치리위원회에 회부하다.
- (5) 이단 사이비 종교 경계 대책 연구회를 종간사의 주관하에 설치하기로 하다.



(6) 신학 고시 위원회 세칙 <한국어> 개정 및 일본어판 작성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 (7) 부부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협약 교단에서 파견받은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건에 관하여서, 선교협약에 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선교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요항 등에 관하여는 신학교시위원회의 선교사 고시 기준(고시, 청빙처 등)의 필요성이 있어, 신학교시위원회에 맡겨서 진행하기로 하다.
- (8) 제55회 정기총회를 2019년 10월 13일(주일) 19:00~15일(화) 17:00, 名古屋교회(교섭) 개최하기로 하다.
- (9) 차기 상임위원회는 2019년 4월 9일(화) 11:00, 大阪北部교회에서 가지기로 하다.

청년회전협

제56회 정기전국협의회 개최 新 대표위원에 中野晃徳 (名古屋) 선출



지난 9월 23일(주일) 18시부터 24일(월, 대체휴일)에 걸쳐, 청년회전국협의회(이하, 전협)의 제56회 정기전국협의회(이하, 총회)가 가와사키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일째는, 개회예배로 시작했다. 성경은 애베소서 5: 16~17절 말씀으로, 가와사키교회의 김건목사님께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살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주셨다. 청년기는 장래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힘 안에 어딘가에 감싸 안기는 것 같은 따뜻한 말씀을 받았다.

총회로 들어가 주로 2017년도의 활동 내용을 각부 청년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2017년도에 전협 각각의 활동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물론, 각 부서의 총괄에서 지난 1년간 수고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걸어온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청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치유 해주시고 있다고 느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2일째는 토의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전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 후, 임원 개선을 실시하여, 2018년도 임원으로 새롭게 9명의 청년이 선출되었다. 임원 중 6명이 새로운 멤버가 선출되어, 하나님께서 전협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해 주실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지식과 경험은 부족할 수 있으나, 서로 협력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임원 전원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회의 마무리로 폐회예배를 드렸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27~31절로 반석교회 조영석목사로부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 전협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힘 있는 내용이었다.

대 표 위 원 : 中野晃徳 (名古屋教会)

부대표위원 : 張 晶 淳 (川崎教会)

총 무 : 韓 潔 (名古屋教会)

(보고 : 나카노아키노리)

서남지방회

찬양 전도집회를 개최 윤형주 장로 초청 「사랑의 콘서트」 성황

서남지방회의 찬양전도집회가 지방회 전도부주최로 2018년 10월 7일, 8일, 「윤형주 장로 초청 사랑의 콘서트」로서 후쿠오카교회에서 개최되어 성황리 마쳤다.

2018년 토요일 아침, 태풍가운데서 후쿠오카에 도착한 윤형주 장로 부부는, 먼저 서남지방회의 안내로 윤동주 시인이 1945년 2월 16일 서거한 장소 구후쿠오카형무소의 유적지를 방문, 현화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10월 7일 주일 오후 5시부터 후쿠오카교회에서 개최된 전도집회는 서남지방회의 각교회의 신도, 일본교회의 신도, 「후쿠오카·윤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 회원 등 약 113명이 모였다. 윤형

주장로로는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 43: 1)」라는 제목 아래 큰 은혜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다음날은 오전 9시 30분부터 서남지방회 신도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열린 찬양집회



에는 약 100명이 모인 가운데 「섬김 (누가복음 10: 25~37)」이라는 제목으로, 윤형주 장로의 찬양과 신앙과 교회 생활의 봉사의 간증이 뜨겁게 전해져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보고 : 김인과 목사)

종교지방회

기후교회 신축 입당식 거행 권사 취임식과 명예집사 추대식도



2018년 9월 1일 오전 11시에 기후교회 신축 교회당 입당식과 최부자권사 취임식, 김초지, 이카이유리요집사 명예집사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고성목사의 사식으로 예배가 시작되어 정연원목사(오사카교회)가 “성전 입당과 우리의 기도 (열왕기상 8 : 41~4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최부자권사 취임식, 김초지, 이카이유리요집사 명예집사추대식이 거행되었다.

축기후교회는 2016년 7월에 노후화된 예배당이 지진으로 파손되어 그동안 인근 일본기독교단 카요교회를 빌려 임시 예배당 삼아 사용하고 있었다. 재해로 인한 뜻밖의 긴급 건축이었기 때문에 예비된 건축 예산이 거의 없었지만 신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드리며 나아간 결과 교회당 파손 후 2년 2개월만에 새 교회당이 건축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 종회 내의 교회와 기후교회 신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 교회와 여러 형제 자매로부터 기도를 통한 성령의 현금이 모였다.

신축 교회당은 목조 2층 구조로 1층이 교회시설, 2층이 목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광발전과 베리어프리 설비가 도입되어 친환경적 요소와 지역전도를 위한 개방적인 설계로 건축되었다. 입당식에

설교여성회

제31회 수양회 개최 재일동포의 역사와 원폭피해 배워



2018년 10월 2일 ~ 3일, 제31회 수양회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였다. (참가자 35명)

히로시마교회에서 나카에요이치목사님의 인도함으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다른 12년의 인생을 걸어 온 여성들> (눅 8 : 40~56)이란 제목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를 믿는 신앙인으로써의 은혜 풍성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히로시마교회 여성회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사를 나누면서 각 교회 교우들과의 다정한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에는 <히로시마의 옛날과 지금, 미래>라는 주제로 나카에요이치목사님의 강의가 있었다. 먼저 7월 5일 ~ 6일 미명에 발생한 서일본 호우 피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지금도 그 피해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는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다.

계속적으로 히로시마 재일동포의 역사는 많은 한국의 부천 출신 자들이 직업을 찾아 빈곤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토목 관계의 일 등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해방후 일본에 히로시마에 남은 조선인 10만명이 히로시마에 거주하였지만 원폭피해자와 사망자는 아직도

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120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 하였고 하나님께 새 교회당 입당을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예배와 교제를 나누었다.

(보고: 고성목사)

관서여성회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 개최 14교회 여성회가 찬양을 경연



일본 그리스도교회 「닛키·킨카·콜 성가대」

2018년 9월 9일 (주일) 관서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주최로 「제28회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이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개회예배는 관서지방회 회장 박성균 목사(와카야마 제일교회)의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시다」란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제2부에는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관서지방교회의 14팀의 여성회가 참가해서 찬양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심사할 동안에 사회복지법인 사와리의 「노래회」, 일본그리스도교회 「닛키·킨카·콜 성가대」의 특별출연이 있었다.

이번에 페스티벌상: 사카이 교회, 찬양상: 히라노 교회, 말씀상: 오사카 제일교회가 받았다. (보고: 전조묘)

알수 없다고 한다.

해방후 1971년에 귀국 원폭피해자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김신환목사님의 활동으로 재일한국 원폭피해자의 초청 치료 개시, 원폭피해자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의 귀중한 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였다. 참가자는 더욱 더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결의를 새롭게 갖는 귀한 수양회가 되었다. (보고: 오오야마 죄오고)

종교지방회

나고야서 일일연수회 거행 권윤일목사가 구약성경 테마로 강의

중부 지방 여성연합회 일일 연수회가 2018년 7월 18일 나고야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부에는 하마마츠교회 권윤일목사가 구약성경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고 점심 식사를 나누고 2부에는 하마마츠교



회 武田喜久子사모의 목회자 사모로서 겉는 삶을 간증을 하였다. 마무리 시간으로 중부지방회 여성연합회 회장 나고야교회 송복희 권사의 인도로 중부지방회 각 교회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 청년부장 김진희)

관서지방회

감사 페스티벌을 개최 여성부·장년부·청년부 공최로

관서지방회 여성부 장년부 청년부 공최 제9회 관서지방회 감사 축제가 10월21일(주일) 오후에 교토교회에서 15교회(전도소 포함)에서 1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110주년'을 맞이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와 신앙계승'이라는 주제로 모였다.

1부 예배는 박영자 목사(도요나카제일부흥교회)의 '主を思ひ起こしなさい' (신명기8:11-18)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2부에는 이청일 목사의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기억하며,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미래를 위한 신앙의 계승을 준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 목사님의 역사와 신앙계승에 대한 열정으로 청중들



이 알기 쉽도록 정리된 강연자료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제3부 교류회에서는 각 교회 여성회가 준비하고 후원한 식사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그 감사 축제의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번 감사 축제를 통하여 관서지방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좋은 감사 축제 되기를 희망한다.

(보고 :관서지방회 청년부)

토론토에 재일동포 캐나다 선교사 전시실 개관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이 있다. 130년 전 한반도 북부와 간도 지역의 복음화와 근대화 및 민족 해방에 기여했던 180여 명의 내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적 유산을 미래에 계승하기 위하여 2011년에 개관하여 그들의 선교사역에 관한 자료를 발굴,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캐나다 선교사들의 조선인 전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1925년 캐나다의諸 교회들이 연합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로교회의 일부가 연합교회에 속하지 않고 캐나다 장로교회의 역사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함경도에서 선교 사역을 철수하게 된 캐나다장로교회 선교사 Luther L. Young 목사는 캐나다로 귀국하는 길에 일본 관서 지방에 들리게 되는데, 그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귀국하여 캐나다장로교회에, 조선 땅에서는 선교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인들에게 선교하자고 견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캐나다 장로교회는 1927년부터 정식으로 재일동포 선교에 첫발을 놓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연약한 재일조선인교회는 캐나다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 활동에 힘입어 약 10년 동안 일본 전역에 교회가 두 배를 늘어났으며 1934년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정식으로 교단 설립을 하여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조직적 교단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90년 동안 34명의 선교사가 재일동포 선교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선교활동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지금도 대를 이어가면서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재일동포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재일동포 선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소식

을 알게 된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의 대표 황환영장로가 지난 2018년 1월에 일본에 와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드디어 지난 2018년 9월 22일에 <재일동포 캐나다 선교사 전시실>과 유품 전시실도 개관하게 된 것이다.

과거 우리 조국에서의 선교 활동 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동포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복음을 전해 준 것은 물론, 해방 후에도 귀국선을 타지 못하고 일본 땅에 남겨져서 온갖 차별과 냉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주었던 고마운 분들의 흔적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후세대에 존귀한 선교의 발자취를 가르치는 배움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전시관의 설립자 최선수장로, 대표 황환영장로, 총무 이항수집사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이 귀한 개관식에 초청 받아 총간사 김병호목사와 John McIntosh 선교사의 대를 이어 재일동포 선교사로 파송받아 활동하고 있는 David McIntosh 선교사와 함께 참석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며, 이 자료 전시관의 개관과 함께 2019년 6월 10일 ~13일에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역자 연수회를 토론토를 방문하여 가지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
- 1483ページ
- 価格: 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